

2016.03.25

# 주간

## 주요 베트남비즈니스 정보

### Contents

#### I. 베트남내 기업동향

- ◆ 한국진출기업 동향
- ◆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 ◆ 베트남기업 동향

####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베트남사무소



## I. 베트남내 기업동향

### ◆ 한국진출기업 동향

- ▶ 베트남, 3억달러 규모 삼성전자 R&D센터 설립 승인
- ▶ 롯데마트, 베트남에 국산 딸기 수출
- ▶ 갈 곳 잃은 개성공단 업체들, 베트남 찾는 까닭은

### ◆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 ▶ ODA 및 우대 대출 관리와 이용에 관한 새로운 정령 공포
- ▶ 빅C인수에 이온이 가장 유력한 후보, 롯데도 입찰에 참여
- ▶ 애플, 베트남에 10억 달러 투자 원해

### ◆ 베트남기업 동향

- ▶ Vingroup, 이번에는 서적 판매 회사를 그룹 산하에
- ▶ 일하기 좋은 직장 100위에 베트남 기업 대거 입성

##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 ▶ 베트남, 국가주식·총리 내달 선임...지도부 석달 앞당겨 개편
- ▶ Dầu Giây(동나이 성)~Phan Thiet(빈투언 성) 고속 도로 제 1 구간 2017 년 착공
- ▶ TPP 비준 절차, 7 월 개최하는 제 14 기 제 1 회 국회에서
- ▶ 1 인당 식품 소비액, 11 년간 3 배 늘어난 560 만 VND
- ▶ 2015 년의 부실 채권 비율, 2.55%, 베트남 중앙 은행 통계
- ▶ 재무부 Dung Quat 정유소에 대한 세계 우대 지지
- ▶ 내년의 최저 임금 인상안 관련 조사 개시, 국가 평의회
- ▶ 신규 주식 공개 기업, 이달 급증, 성장 기대감
- ▶ 베트남산 새우 반덤핑세 인상, 미 상무부가 예비 심사 결과 발표
- ▶ 철강 수입 규제 강화, 21 일부터 품질 적합 증명 의무화
- ▶ 서(西) 사이공, 거주지 프로젝트로 소매지역 소비력 증가 예상
- ▶ 재정부, 기업 세금 환급 전 의무 규정 철회



## 대한상공회의소

- ▶ 무역정보포털, 수출입 정보 등 무역관련 정보 제공
- ▶ 응에안(Nghê An)성, 농업 관련 성공 모델 구축
- ▶ 기업 허가세, 허가료로 명칭 변경
- ▶ 석유탐사 개발사업에 대한 세제규정
- ▶ 계획투자부, 민관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타당성 평가, 투자 승인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
- ▶ 은행 대여금고 임대 서비스에 관한 규정





## I. 베트남내 기업동향

### ◆ 한국진출기업 동향

#### 베트남, 3억달러 규모 삼성전자 R&D센터 설립 승인

- 베트남 정부는 삼성전자가 수도 하노이에 3억 달러(약 3천 484억원)를 투자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
- 베트남 정부 소식지(VGP 뉴스)는 응웬 쩐 중 베트남 총리가 23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베트남법인(SEV)의 R&D 설립 계획을 승인했으며 50년 동안 임대료 없이 운영된다고 전함
- 삼성전자는 현재 하노이의 한 건물을 임대해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R&D 센터를 만들면 현재 1천 400여명인 인력도 늘릴 것으로 예상됨
-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휴대전화 공장 2 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삼성디스플레이는 현지에 생산시설을 짓고 있음
- 한편, 베트남통신에 따르면 애플도 베트남에 1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베이스 센터를 세워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R&D에 나설 것으로 알려짐
- 베트남이 동남아의 대표 휴대전화 시장으로 급성장함에 따라 애플은 지난해 10월 남부 호찌민시에 현지법인을 세운 바 있음

\* 출처: Yonhapnews, 03.24

#### 롯데마트, 베트남에 국산 딸기 수출

- 롯데마트가 수출 전문 농업법인 '한국버섯수출사업단'과 함께 베트남 시장에서 '매향' 품종의 딸기를 수출함
- 20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첫 수출량은 약 1t으로, 베트남 호치민 롯데마트 3개 점포에서 판매될 예정임
- 롯데마트 관계자는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딸기 수요가 많은 나라지만, 토종 딸기 품종이 작고 신 맛도 강한 편이라 크고 단 한국 딸기가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함



○ 실제로 이번에 베트남에서 팔릴 한국산 딸기 가격(1kg 40 만동)은 베트남산의 4 배에 이릅니다. 롯데마트는 한 달 정도 시범 판매를 거쳐 반응이 좋을 경우 내년 딸기 생산 시기에 본격적으로 베트남 내 모든 점포로 판매처를 늘릴 계획입니다

\* 출처: Yonhapnews, 03.20

## 갈 곳 잃은 개성공단 업체들, 베트남 찾는 까닭은

○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당장 생산 터전을 잃게 된 입주기업들이 베트남을 공장 이전지로 물색하고 있음

○ 대체 공장 마련이 급한 개성공단 기업들에게 값싼 임금의 노동력이 풍부한데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대표적인 수혜지역인 베트남은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음

○ 21 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개성공단 피해기업들의 해외 대체 공장 유망지역으로 떠오르면서 개성공단에서 섬유·의류 등의 제품을 생산하던 중소기업 대표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음

○ 최근 한 섬유·의류업체는 베트남 북부 하이즈엉 성과 하이퐁 시에 있는 공단을 방문해 투자 인센티브와 인프라실태, 물류 여건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장 후보지를 물색한 한 전자업체는 현지에 매물로 나온 공장의 인수를 고려 중임

○ 베트남은 정치 안정과 대외 개방 확대, 풍부한 노동력과 낮은 임금, 도로 항만 등 잘 갖춰진 인프라로 다른 아시아국가보다 투자하기 좋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음

○ 특히 베트남의 월 최저 임금(2016 년 기준)은 155 달러로 중국 262 달러의 59% 수준밖에 안된다. 인도네시아 221 달러보다 훨씬 낮음

○ 더욱이 베트남 정부는 투자 절차 간소화와 투명성 확보 등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음

○ 세계경제지도의 40%를 차지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 가입국이라는 장점도 있음

○ TPP 참여와 함께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출범, 한국과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에 힘입어 베트남은 중국을 대신할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정부와 유관기관도 개성공단 기업의 해외 공장 유망 후보지로 베트남을 꼽는다. 실제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들 지역에 대한 투자 및 관로 지원에 나서고 있음
  - 하지만 인건비와 땅값이 오르는 등 부정적인 투자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트남의 최저 임금 인상률이 올해 12.4%로 작년 14.8%보다 둔화했지만 꾸준히 인건비가 오르고 있음
  - 실제 베트남의 제조업 부문 월평균 임금은 250 달러(29 만원) 수준에 책정돼 있다. 개성공단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73.57 달러(8 만 9000 원)인 것을 감안하면 개성공단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생산공장을 옮겨도 어느 정도 부담은 불가피함
  - 또 베트남 진출 시 외국인 투자금 유입 확대와 경제 성장에 따른 공장 부지 가격의 인상, 관리자급 인력의 부족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요소임
- \* 출처: Etoday.co.kr, 03.21

## ◆ 외국진출기업 동향(한국진출기업 제외)

### ODA 및 우대 대출 관리와 이용에 관한 새로운 정령 공포

- 베트남 정부는 최근 지원국의 정부 개발 원조(ODA) 및 우대 대출 관리와 이용에 관한 새로운 정령을 공포함
- 2013 년에 나온 정령 38 호/2013/ND-CP 를 대신하는 것으로, 관리가 더 엄격하게 되고 있음
- 새 정령은 ODA 와 우대 대출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분야로 ◇ 경제·사회 인프라 안전과 계획을 실시하는 지원, ◇ 경제 사회 발전 정책 책정 및 국가 관리 제도 강화 지원 ◇ 인재 육성 지원, ◇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 ◇ 환경 보호 기후 변화 대처, 녹화 사업 지원 ◇ 관민 파트너십(PPP) 방식으로 안전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분야, ◇ 총리가 결정하는 기타 분야 등 8 가지를 규정하고 있음
- 새 정령은 또 ODA 및 우대 대출을 국가적 목표와 중요 안전에 이용할 경우 결정 권한에 대해서는 공공 투자 재원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해서 정하는 공공 투자 법(2015 년



1 월 1 일 시행) 제 17 조 제 1 항에 따르면 기타의 경우는 동 제 17 조 제 2 항에 따른다고 규정. 총리가 투자를 결정하는 계획이나 안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 또 ODA 및 우대 대출을 이용할 계획이나 안건의 제안 및 선정의 순서나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 제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승인된 중기 및 연간 공공 투자 계획과 경제 사회 발전 계획 또는 전략에 적합한 것 등 7 개 항을 정하고 있음

\* 출처: Vinahanin.com, 03.23

## 빅C인수에 이온이 가장 유력한 후보, 롯데도 입찰에 참여

○ 미국 블룸버그(Bloomberg)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이온(AEON) 그룹은 프랑스의 소매 기업 Casino Guichard Perrachon 회사가 베트남에서 전개하고 있는 슈퍼 마켓 "빅 C"의 인수 합의에 다가가고 있다고 함

○ 관계자에 따르면 빅 C 의 경매 입찰에서 이온이 8 억 USD 에 응찰한 가장 유력 후보가 되고 있다. 다만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함

○ 빅 C 의 입찰에는 한국 롯데 그룹과 태국의 소매 최대 기업인 센트럴 그룹(Central Group), 태국 부호 Charoen Sirivadhanabhakdi 씨가 이끄는 대형 재벌 TCC 홀딩스(TCC Holding)가 응찰에 참여함

○ Casino Guichard Perrachon 는 판매가 부진한 것을 배경으로 아시아와 남미의 자산을 매각하고 채무를 줄여 이 회사의 최대 시장인 프랑스 소매업에 경영 자원을 집중하고 있음

○ 또 2 월에 TCC 홀딩스와 태국에서 전개 중의 빅 C 슈퍼 센터 체인을 31 억 EURO 에 매각하기로 합의함

\* 출처: Vinahanin.com, 03.19

## 애플, 베트남에 10억 달러 투자 원해

○ 라이벌인 삼성 전자를 따라 애플은 하노이시에 투자할 것이라 밝혔으며, 이로 인해 베트남은 세계 스마트폰 생산에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대한상공회의소

- 이로 인해 베트남은 많은 새로운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할게 될 것으로 보임. 한 정보에 따르면, 애플은 하노이시에 아시아 지역을 위한 데이터 센터 구축을 원한다고 밝혔으며, 총 투자금은 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함
- 현재 애플은 위치 선정을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투자 절차에 필요한 수속을 완료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함
- 만약 이번 투자가 성사된다면, 대 베트남에 대한 애플의 첫 번째 투자가 됨. 애플의 라이벌사인 삼성, LG,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오래전부터 베트남에 각 프로젝트를 투자해옴
- 특히, 삼성전자는 약 100억 달러를 투자해 하노이시 박닌성 타이wing에 세계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 생산기기 생산 공장을 설립했으며, LG는 15억 달러를 투자해 첫 번째 생산단지를 하이퐁에 설립 완료함
- 마이크로소프트사는 2014년 중국, 헝가리, 멕시코에 있던 생산 공장을 베트남 박닌성으로 이동시킴
- 한편 이번 애플의 투자가 다른 라이벌사와 다른 점은 생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는 점임
- 이번에 투자하게 될 10억 달러는 모두 아시아 지역을 위한 연구 센터와 데이터 센터 설립을 위해 사용하게 됨
- 이러한 R&D 투자는 애플의 발전 방향이기도 하며, 전자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발하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두는 투자이기도 함
- 애플은 작년 아이폰을 위한 세계 R&D 활동 투자에만 80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이 금액은 2015년 총 매출액(2015년 9월 정산)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기도 하다. 이러한 R&D 투자 비율은 2013년, 2014년에도 같음
-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첨부된 응용 프로그램 플랫폼 등의 신규 모델 개발 뿐 아니라 애플은 스마트 워치나 TV에 대한 신규 사업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 소문에 따르면 애플은 자동차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연구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애플의 R&D 센터는 영국, 중국, 대만, 미국, 이스라엘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일본에 신규 R&D 센터를 설립 중에 있음





- 예상에 따르면 올해 6 월안으로 인도에 신규 R&D 를 설립할 것으로 예측됨. 현재까지는 애플이 하노이시에 투자 프로젝트를 언제 전개 할 것인지, 어떤 분야에 대한 연구 센터를 설립하는지 확실치 않음
- 하지만 투자 규모만 보면 애플이 보는 베트남의 연구 개발 잠재력 평가는 높은 것으로 보고 있음
- 게다가 애플이 베트남에 투자 하는 10 억 달러는 생산 분야가 아닌, 연구 및 개발 활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 최대 기술 기업의 대 베트남의 투자는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이를 통해 다른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 베트남에 대한 신규 투자에 매력을 느끼게 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음
- 애플 이전에 휴렛팩커트, 파나소닉, 닛산 테크노 사는 베트남에 R&D 센터를 설립했고 현재 애플의 최대 라이벌인 삼성전자는 하노이시에 신규 R&D 센터 설립에 대한 최종 수속을 마쳤으며, 투자금은 3 억 달러에 이름
- 이 신규 센터는 현재 R&D 활동을 하고 있는 PVI TOWER(하노이)를 대신할 것이라고 전망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23

### ◆ 베트남기업 동향

#### Vingroup, 이번에는 서적 판매 회사를 그룹 산하에

- 베트남 서적사(Savina)는 Vingroup 을 전략적 투자자로 선정함. 초기 자본금 65%인 4,400 만주 이상을 공개 경매 전에 직접 합의 방식으로 매각함
- 협상 개시 금액은 1 만 500 동. IPO 는 3 월 24 일에 실시하고 1,673 만 5,590 주를 매각함
- Savina 의 2015 년 당기 매출은 310 억동(약 141 만달러), 그 중 60%가 서적·문방구 판매. 2016 년 매출 계획은 1,850 억동(약 841 만달러) 이후 2 년은 1,900 억동(약 864 만달러), 1,940 억동(약 882 만달러)을 목표로 이들의 년 총 매출의 80%정도를



프로젝트로부터 시행하고, 세금 제외 후 이익 목표는 차례로 480 억동(약 218 만달러), 540 억동(약 245 만달러), 590 억동(약 268 만달러)

\* 출처: Vinahanin.com, 03.20

## 일하기 좋은 직장 100위에 베트남 기업 대거 입성

○ 안파베(Anphabe)와 넬슨(Nielsen) 기관이 공표한 내용에 따르면 여전히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상황인 가운데, 현지 기업들 또한 조금씩 순위권에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안파베 직업공동 네트워크와 넬슨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 100 위 명단에, 유니리버(Unilever)가 계속해서 1 위를 차지했고 비나밀크(Vinamilk), 네슬레 베트남(Nestle Vietnam), 브록터&갬블 베트남(P&G), IBM Vietnam,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펩시코(Pepsico), 비엠텔(Viettel) 등이 그 뒤를 이었음

○ 주목할만한 점은 올해 많은 베트남 기업들이 새롭게 순위권 안으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2014년에는 17 개 밖에 없었지만, 2015년에는 노바랜드(Novaland), 호아빈(Hòa Bình Corp), 바오비엣 보험사(Bảo Việt Insurance)등을 포함한 22 개의 베트남 기업들이 100 위 안에 들었다. 뿐만 아니라 마산(Masan)그룹(31 위에서 13 위), 빈그룹(Vingroup) (79 위에서 41 위), FPT(28 위에서 21 위), Viettel(18 위에서 8 위)등 작년엔 비해 몇몇 베트남 기업들의 선호도 순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남

○ 비나밀크 사는 장려금 및 복지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네슬레는 문화 및 가치 부문에서 1 위를, 인텔은 업무 품질, 그리고 기업 명성 두 부문에서 1 위를 차지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기업 IBM(5 위)의 뒤를 이어 FPT 가 21 위로 베트남 정보통신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함

○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퇴직율을 9%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여성보단 남성이 많을 것이며 일반 사원급 보다는 고위직의 비중이 클 것으로 나타남

○ 퇴직율이 가장 높은 3 개 분야는 화학물질 생산, 생활필수품 생산, 서비스 및 자문 분야이며 업계로 봤을 때는 영업(Sales), 생산, 마케팅 분야로 조사됨



○ 근로자가 일자리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 가지 요소는 임금, 보너스, 복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복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손꼽혔다. 반면 임금 요소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낮아져 7 위에 머물렀음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23

## II. 베트남 산업/정책/기타 주요뉴스

### 베트남, 국가주석·총리 내달 선임...지도부 석달 앞당겨 개편

○ 베트남이 예정보다 3 개월 앞당겨 국가지도부 개편을 마무리함. 23 일 현지 정가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내달 2 일 신임 국가주석으로 쩌 다이 팡(59) 공안부 장관을, 같은 달 7 일 신임 총리로 응웬 쉐언 푹(61) 부총리를 각각 공식 선임할 계획임

○ 앞서 국회는 오는 31 일 신임 국회의장으로 응웬 티 킴 응언(61) 국회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임

○ 베트남 공산당은 지난 1 월 전당대회에서 임기 5 년의 국가지도부 '빅 4' 가운데 권력서열 1 위인 응웬 푸 쩡(71) 공산당 서기장만 연임시키고 쯔영 떴 상(67) 국가주석, 응웬 떴 중(66) 총리, 응웬 신 흥(70) 국회의장의 후임자를 내정함

○ 당초 베트남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5 월 22 일 총선을 통해 새 국회를 구성하고 현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7 월 후임자를 공식 선임할 계획임

○ 베트남에서 국가지도부 조기 개편은 이례적이다. 기존 지도부의 임기 말 레임덕을 막는 것은 물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5 월 베트남을 방문할 때 신임 지도부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사태, 경제협력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공산당 일당 체제인 베트남은 서기장을 정점으로 국가주석(외교·국방), 총리(행정), 국회의장(입법)이 권력을 나눠 갖는 집단지도체제를 택하고 있음

\* 출처: Yonhapnews, 03.23

### Dầu Giây(동나이 성)~Phan Thiet(빈투언 성) 고속 도로 제1구간 2017년 착공

○ 동남부 지방 동나이성과 남 중부 해안 지역 빈투언 성을 잇는 Dầu Giây(동나이



성)~Phan Thiet(빈투언 성)간 고속 도로 안건 실시 계획안에 따르면 제 1 구간의 Dầu Giây~Xuan Loc(동나이 성)는 2017 년 제 1 분기 중 착공, 2019 년에 완공될 전망이다.

이 안건의 투자주로 교통 운수부 산하 제 1 안건 관리 위원회(PMU1)가 밝힘

○ 또 제 2 구간 Xuan Loc~Phan Thiet 간은 2017 년 말 착공, 3 년 뒤에 완성할 전망이다

○ 이 안건이 완성되면 호치민시에서 남쪽 중부 연안 지방 각 성에 대한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국도 1A 호선의 교통량 삭감으로 이어질 것과 함께 이 지방의 관광 개발이나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이에 앞서 정부는 이 안건을 36km 구간과 62km 구간으로 2 개 구간으로 분할하여 실시하는 데 동의했다. 제 1 구간은 길이 36km 로 국제 개발 협회(IDA)대출을 통해서 국가 예산으로 조달함

○ 제 2 구간은 길이 62km 로 교통 운수부가 세계 은행(WB)과 협력하여 관민 파트너십(PPP)방식의 투자를 검토한다. 투자 총액은 17 조 7000 억 VND 으로 이 중 제 1 구간이 6 조 2000 억 VND

\* 출처: Vinahanin.com, 03.25

### TPP 비준 절차, 7월 개최하는 제14기 제1회 국회에서

○ 응웬 쩌우 쉐우 수상은 환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의 비준 절차에 관한 정부 상임 위원회 회의에서 7 월 개최하는 제 14 기(2016~2021 년) 제 1 회 국회에서 비준을 신청할 방침을 밝힘

○ 또 쩌우 쉐우 총리는 TPP 협정이 베트남의 경제 정치 사회에 큰 역할을 한다며 관련 당국에 대해서 TPP 협정의 발효로 생길 수 있는 법률 규정 관련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4 월 20 일까지 비준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라고 지시함

○ TPP 협정 당사국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칠레, 페루,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등 12 개국으로 2010 년 3 월부터 5 년 반 동안 협상을 거쳐 2015 년 10 월에 대략 합의에 이르렀다. 2 월 각국 대표가 이 협정에 정식 서명하고 2018 년 발효될 전망이다

\* 출처: Vinahanin.com, 03.24



**1인당 식품 소비액, 11년간 3배 늘어난 560만 VND**

- 베트남 통계 총국(GSO)의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의 연간 식품 소비액은 2010 년 187 억 USD 에서 2015 년에 276 억 USD 로 증가했다. 2016 년에는 295 억 USD 에 달할 전망이다
  - 1 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도 크게 늘고 있다. 2015 년은 560 만 VND 으로 2004 년에 비해 3 배로 늘었다. 2016 년의 1 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577 만 VND 으로 예상되고 있음
  - 농업 농촌 개발 정책·전략 연구소(Agroinfo)에 따르면 대도시에서의 한 명당 월 식품 소비액은 전국 평균 액수의 2 배에 상당한다고 함
  - 2014 년의 한명 당의 월간 식품 소비액은 호치민시가 96 만 1000VND, 남쪽 중부 연안 지방 다낭시가 80 만 2000VND 이다. 2015 년 전국 평균 액수는 47 만 VND 임
  - 베트남 소매업 협회는 식품 소비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로 소비자의 수입 증가와 국내 소매업의 발전을 꼽았다. 현재 전통적인 시장이나 노상 점포에서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85%에 이르고 슈퍼 마켓 편의점 등에서 구입하는 비율은 15%에 그치고 있음
  - 다만, 슈퍼 마켓 편의점 등에서 구입하는 소비자의 비율은 증가 경향에 있으며 식료품에 대한 동향도 크게 바뀌고 있다. 이전에는 "배불리 먹는다"것이 중시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맛있고 안전한 것을 먹는"것이 요구되고 있음
- \* 출처: vinahanin.com, 03.23

**2015년의 부실 채권 비율, 2.55%, 베트남 중앙 은행 통계**

- 로이터 통신이 16 일 베트남 국가 은행 발표의 통계로에 따르면 2015 년 말 시점의 베트남 은행 대출에서 차지하는 부실 채권 비율은 2.55%로 전년 말의 3.25%에서 떨어지고 부실 채권 문제가 표면화한 2010 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됨
- 2015 년 말의 부실 채권 비율에 대해서는 정부의 국가 금융 감독 위원회가 14 일 2.9%로 전년 말의 3.7%로 약화됐다고 공표했지만 국가은행 통계의 비율은 이보다 낮음



- 약화된 베트남 은행 부문은 최근 몇년 대출이나 채권 분류의 엄격화, 강제적인 합병, 수많은 사기 행위 수사·적발,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기관인 국영 자산 관리 회사 설립 등 부실 채권 문제에 대처하는 대규모 개혁 과정을 거침
- 이 결과 은행 대출은 회복되고 국가 은행은 올해 대출 증가율을 6년 만에 최고 수준인 18~20%로 잡고 있음
- \* 출처: vinahanin.com, 03.20

### 재무부 Dung Quat 정유소에 대한 세제 우대 지지

- 베트남 재무성은 값싼 수입 석유 제품과의 경쟁에서 고전하는 국영 베트남 석유 가스 그룹(페트로 베트남)산하 Dung Quat 정유소(Quảng Ngãi 성)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우대 조치 요청을 지지할 예정이라고 15일 현지 언론 보도로 전함
- 이것에 따르면 재무부의 차관은 한국에서 석유 제품 수입 세율이 올해는 10%로 20%부터 인하된 점을 감안하면 "이 요청은 절대 필요한 조치이다"라고 밝힘
- 차관은 재무부가 Dung Quat 정유소에 대한 내외 제품 간의 취급에서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세금 정책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지난 달 페트로 베트남과 운영 회사 Binhson 정유 화학 공사(BSR)은 정부에 수입 석유 제품에 대한 과세율을 낮추도록 요청함
- 페트로 베트남 등은 세금 우대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고객이 자유 무역 협정(FTA) 회원국들의 저가 제품에 대한 기대로 주문이 줄어들 것으로 Dung Quat 정유소는 2,3개월 이내에 조업 정지에 몰리게 될 거라고 경종을 울리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 정유소는 채산성이 나쁜 프로젝트이며, 추가적인 우대 조치 요청에 응할 가치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음
- \* 출처: vinahanin.com, 03.20

### 내년의 최저 임금 인상안 관련 조사 개시, 국가 평의회

- 베트남 국가 임금 위원회는 가까운 시일에, 2017년 지역별 최저 임금 인상을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 노동·보훈 사회부 사업국에 따르면 조사에서는 근로자의 생활 수준과



## 대한상공회의소

수입의 실패, 임금 제도에 의한 영향을 알아 본다. 라고 베트남 현지 언론들이 보도함

○ 베트남 상공 회의소(VCCI)의 관계자는 VCCI 가 인상 실시의 조사와 함께 내년 지역별 최저 임금의 타당한 인상 폭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함

○ VCCI 는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기업이 올해 직원의 최저 임금을 올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인상이 늦어져 최근 남부 지역의 종업원 파업 발생 요인이 되고 있음

○ 사회부의 차관은 각 성 시에 대해서, 올해 최저 임금을 반영하도록 촉구했다. 사회부는 북부 타이 응웬 성, 닌빈 성, 흥옌 성의 의류 및 전자 산업의 국내의 기업들로부터 급여, 사회 보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이들의 의견은 제 3 분기(7~9 월)에 2017 년 최저 임금을 정하는데 있어 참고가 될 것임

○ 차관은 관계자로부터 내년의 인상안의 합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논의를 당국이 해야 한다고 지적함

○ 노동 조합 중앙 조직인 베트남 노동 총동맹(VGCL)의 부위원장은 각 성시의 기업과 관련 기관에 서한을 보내, 올해 최저 임금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감시 강화를 촉구함

○ 국가 평의회는 지난해 여러 차례 논란 끝에 2016 년 전국 최저 임금을 전년보다 12.4% 인상안에 합의했다. 최저 임금이 높아짐으로써 기업의 지급 근로자 사회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 출처: vinahanin.com, 03.20

### 신규 주식 공개 기업, 이달 급증, 성장 기대감

○ 베트남에서 3 월 들어 신규 주식 공개(IPO) 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IPO 을 실시 또는 시행한다고 발표한 기업은 20 여개로, 그 대부분이 크게 성장에의 기대나 유명한 전략적 외국 투자 유치라는 관심을 끌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함

○ 호치민시 증권 거래소에서는 4 일 식품 판매 수출의 Cho Lon 수출입·투자 회사(CHOLIMEX)가 IPO 을 실시하여 전체의 24.92%에 해당하는 2158 만주 이상을 매각함



- 이 중 1383 만 7600 주는 입찰에 성공하고 194 명의 개인 투자자와 5 개의 법인이 낙찰. 1 주당 평균 가격은 1 만동, 최고치는 1 만 5400 동으로, 총액 1380 억동 이상을 조달함
- 주식 회사화 후 자본금은 8660 억동. 국가의 보유율은 49%를 유지하고 노동 조합과 종업원에 1.15% 이상 배정 받아 전략적 투자자에게는 24.9%를 매각하기로 되어 있음
- 식품 가공 회사 Vissan 도 7 일에 IPO 을 실시. 공모 1130 만주(전체 주식의 14%)에 대해서 그 5.6 배인 6350 만주 이상의 구입 등록이 있어 1 주당 최저 낙찰 가격 1 만 7000 동, 평균 낙찰 가격 8 만동 이상에 팔렸으며 9000 억동 이상을 조달함
- Vissan 의 주식 회사화 계획에 따르면 자본금은 8090 억동 이상으로 이 중 14%를 IPO 에 매각. 65%를 국가가 보유하고 전략적 투자자에게 14%매각, 7%를 노동 조합·종업원에 할당한다. 이 회사의 전략적 외국 투자자는 마산과 한국의 CJ 그룹임
- 섬유·봉제 분야에서도 Gia Dinh 잡화 봉제사가 18 일에 IPO 을 예정하고 있다. 1500 만주를 신규 공개할 계획으로, 매매 가격은 1 주당 1 만 200 동.
- IPO 후에는 자본금이 6270 억동 넘고 국가의 보유율은 49%, 종업원이 1.72%를 보유하고 전략적 투자자가 25%를 보유하게 되어 있다. 나머지 24.28%가 공개 됨
- 2012~2014 년에서의 Gia Dinh 사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일본과 미국에서 일본은 이 회사의 수출 총액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전용도 45%를 차지하고 있음
- 그것 외에 "베트남·고무그룹", "Nha Trang 백신, 생물 제약 회사", "TIN NGHIA 종합 회사", "베트남 서적 회사"등의 IPO 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호치민시 증권 거래소에서는 2015 년에 50 건의 IPO 을 통해서 총 3 억 3810 만 주가 팔렸고, 4 조 4500 억동이 조달됐다. 2016 년 중에는 모비폰, Ben Thanh 그룹, 사이공 무역 등의 IPO 가 예정되어 있음

\* 출처: Vinahanin.com, 03.20

### 베트남산 새우 반덤핑세 인상, 미 상무부가 예비 심사 결과 발표

- 14 일자의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상무부 국제 무역국(ITA)은 10 일 베트남산 냉동 양식 새우의 수입에 대한 반덤핑 문제로 제 10 회 관세 행정 심사(POR10)의 예비 심사 결과를 공표





- 응답 의무가 있는 민푸 수산(MINH PHU SEAFOOD JOINT STOCK COMPANY), Soc Trang seafood 2 곳을 정상 가격을 밀도는 것으로 인정하고 각각 2.86%, 4.7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함
  - POR10 은 베트남의 수출 업자 51 개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대상 기간은 2014 년 2 월 1 일~2015 년 1 월 31 일. 민푸에 관세율은 지난 번 심사(POR9)결정의 1.39%로부터 인상됨
  - 또 응답 의무는 없지만 심사를 청구한 수출 업체에 대한 관세율도 3.56%로 저번 심사 0.91%에서 대폭 인상되었다. 이들 이외의 수출 업자에 대한 관세율은 25.76%로 바뀌지 않음
  - 예비 심사 결과에 대해서 베트남 수산 관계자는 대미 수출에서 경합하는 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평균 1.35%로 낮고, 베트남에 대해서는 이부분이 심하다는 내용을 지적하고 다만 베트남 수산물 가공 수출 협회(VASEP)는 이번은 어디까지나 예비 심사 결과로 올해 7 월에 공표가 예상되는 최종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는 것임
- \* 출처: Vinahanin.com, 03.20

### 철강 수입 규제 강화, 21일부터 품질 적합 증명 의무화

- 베트남 관세 총국(GDC)은 13 일, 값싼 철강 제품 수입이 국내 산업을 위협하고 있어 관계 당국이 실시하는 품질 검사 결과를 첨부한 철강 제품만 수입 허가 할 방침을 밝혔다. 규제는 21 일부터 실시함
- 이는 상공부와 과학 기술부가 도입한 국내외 철강 제품에 관한 규제에 부합한 조치로 규제에 따른 GDC 는 관계 당국이 발행한 철강 제품의 품질 검사를 기업이 제출한 제품만 수입 허가함
- 특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입 기업은 상공부 중공업국이 발행된 제품 목록과 동 기관이 발행한 수입 증명서 사본을 보여야 함
- 주요 도시, 성의 GDC 과 상공부, 과학 기술부가 베트남의 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수입 철강 제품의 취급에 책임을 갖게 된다. 또 관계 부처는 철강 수입을 감시하고 국내에 들여오는 제품의 수량을 나타낼 필요가 있음
- 반면 수입업자는 철강 제품의 품질이 국내 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에 책임을 갖게 됨



○ 상공부는 지난주 강제에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일시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구체적으로는 강편과 봉강의 새로운 관세율을 각각 23.3%, 14.2%로 조정함

\* 출처: Vinahanin.com, 03.20

### 서(西) 사이공, 거주지 프로젝트로 소매지역 소비력 증가 예상

○ 사빌스 베트남(Savills Việt Nam)에 따르면, 서쪽 사이공 소매 판매 지역의 경우 현재 임대료 경쟁이 심하며, 평균적으로 m2 당 월/30\$정도이지만 시내 중심지 평균 임대료의 경우 월 100\$/M2 라고 전함

○ 한 부동산 조사팀에 따르면, 소매 시장 공급 중심인 호치민시 시내 중심 핵심 지역의 경우 주택 단지형 소매상점과 현대적인 쇼핑센터 상점을 주로 이루고 있으며, 이곳의 임대료는 평균 m2 당 월 100\$ 수준이라고 밝힘

○ 남(南)사이공 지역 같은 경우, 약 3 개의 쇼핑센터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크레센트몰, 비보시티, 롯데마트가 있다. 이외 나머지는 슈퍼마켓이나 소매상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 3 개의 현대적 쇼핑센터의 임대료는 시내 중심지에 절반 수준인 m2 당 월/50\$ 수준이라고 전함

○ 동(東) 사이공(2 군, 9 군, 투득)의 경우 앞으로 몇 년 후면 임대료가 급속히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여러 거주지 프로젝트와 인프라 발전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곳 임대료의 경우 평균 월 \$35/M2 임

○ 서(西)사이공 소매지역의 경우 빈편 군, 떤 푸 군, 빈짠 지역, 6 군, 8 군이 포함되며, 이곳의 임대료는 평균 m2 당 30\$/월 정도로 사이공 소매 지역 중 가장 저렴한 지역에 속한다고 전함

○ 사빌스 베트남의 평가에 따르면, 서 사이공 지역의 경우 인구수가 190 만 명에 이르며, 충분한 현대적 소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인프라(다리, 도로)개발이 늦어지고 있으며, 교통 연결이 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매 분야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함

○ 서쪽 지역은 인구 밀도가 높고 넓은 토지와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는 대형 소매 판매 프로젝트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메트로 5 호선이나 고속버스 등 가까운 미래에 교통 시스템이 현대적으로 개발된다면, 소매 시장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특히 Cushman & Wakefield 사에 자료에 따르면, 2016 년에 2 개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서 사이공 빈떤 군에 전개되기 때문에 기타 지역보다 소매지역 공급이 많아 질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남 사이공 지역의 경우 프로젝트가 많이 없기 때문에 2016 년-2017 년 소매지역 공급이 서쪽 지역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

○ Cushman & Wakefield 사 소매 서비스 담당자 보 티 프엉 마이(Võ Thị Phương Mai)씨는 “서 사이공 토지의 경우 개발 가능한 토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동력이 될 전망임

○ 또 현재 Aeon(일본), Cetral Group(태국)의 대형프로젝트로 소매지역 공급면적이 약 130,000m2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며” 거주지 프로젝트로 인해 인구밀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소매지역 면적은 가까운 미래에 더욱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측함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23

### 재정부, 기업 세금 환급 전 의무 규정 철회

○ 기업 세금 환급에 대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재정부 고위층들은 공식적으로 기업들이 세금 환급을 받기 전에 기업 채무 세금을 받는 지방 세무 당국의 의무 규정을 철회한다고 밝힘

○ 이번 규정 철회는 3 월 안에 지체되는 세금 환급 제도를 철회하겠다는 도 황 안 뚜언(Đỗ Hoàng Anh Tuấn)재정부 차관의 약속에 의한 것이며, 철회되는 이번 규정은 세금 환급이 지체되는 이유 중 하나였다고 밝힘

○ 뚜언 재정부 차관은 “기업이 국가 예산에 대한 채무가 있지만, 동시에 국가 예산이 세금을 환급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음

○ 실제로 현재 규정에 이와 같은 설명과 채무 예산과 환급 예산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규정이 없었으며, 국가 예산 채무가 있는 기업은 반드시 완급을 하여야만 세금 환급이



실현되기 때문에 약 20 여개 기업들의 경우 세금 환급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함

○ 재정부는 3월 14일 재정부 간부들의 규정 철회 설명이 담긴 공문을 각 지방 세무 당국에 보냈으며 이같은 조치는 기업들의 세금 환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밝힘

○ 재정부는 국세청이 발행한 세금 환급 승인 리스트를 받는 시기부터 세무총국은 책임을 지고 감사와 조사를 진행 해야하며, 지방 세무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이 감사와 조사 업무는 6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힘

○ 세무 총국의 결과를 토대로 각 지방 세무 당국은 세금 환급 결정을 실행하고 결정된 납세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자동 업데이트해야 함

○ 하지만 부가세에 대한 환급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 세무 당국에 요청하여 납세자가 세금 체납에 대한 적발이나, 세금에 대한 금액을 증명할 수 없을 시 세무 당국은 납세자의 신청양식을 따로 분류 하여야하며, 형태를 변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지적함

○ 이에 따라 세금 환급 이전 기록으로 전환되며, 이전 기록 조사 이후 해당 세금 환급 요청 서류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정보는 시스템에 업그레이드 된다고 전함

○ 도 황 안 뚜언 차관은 “지난 2개월 동안 세금 환급을 요청한 기업들의 요청서 중 약 3,100개의 요청서를 처리했으며, 287개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체 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힘

○ 재정부는 지급 지체가 내려진 287개의 기업에 대해 “세금 환급에 대한 기본 규정 법규를 따르지 않았다”고 밝힘

○ 뚜언 차관은 몇가지 부패에 대한 예로 기업이 구매한 물품이 실제 구매 물품이 아닌 경우, 생산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 파산한 기업의 폐쇄된 세금 코드를 사용하여 발급 받은 경우 등을 들었음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23

### 무역정보포털, 수출입 정보 등 무역관련 정보 제공

○ 베트남 무역 정보 포털(VTIP: Vietnam Trade Information Portal)은 수출입 통관 절차, 수출입 통관 흐름표, 규정 및 세관코드, 무역거래에 필요한 자료 등 무역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최근 하노이시에 개최된 ‘베트남 무역 정보 포털(VTIP)’ 프로젝트 소개식에서 VTIP 프로젝트의 자문관인 루이스 존스(Lewis-Jones)는 이와 같이 밝힘

○ 이날 행사에는 베트남 관세총국 대표자, 여러 정부 부처 및 기관 관계자, 무역협회 대표자와 수출입업체의 대표자들은 ‘베트남 무역 정보 포털(VTIP)’ 프로젝트 소개식에 참석함

○ 루이스 존스(Lewis-Jones) 자문관에 따르면 베트남 무역 정보 포털(VTIP)의 목적은 수출입 정보 제공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수요 만족 및 지난 2015년 11월 26일에 베트남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 협정(TFA)의 규정 만족을 위한 것임

○ 베트남 무역 정보 포털(VTIP: Vietnam Trade Information Portal)을 통해 수출입 통관 절차, 수출입 관세제도, 수출입관련 비용납부규정, 수출입 절차 및 경유 절차, 수출입제한 규정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은 정부와 기업의 비용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세계은행(WB)은 베트남 무역 정보 포털(VTIP)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약속함. 베트남 무역 정보 포털(VTIP: Vietnam Trade Information Portal)은 2016년 9월에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에 앞서 지난 1월 12일 하노이에서 베트남 관세총국 대표자와 세계은행의 대표자는 WTO 무역원활화 협정(TFA) 이행 지원을 위한 협력 합의서에 서명함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23

### 응에안(Nghê An)성, 농업 관련 성공 모델 구축

○ 응에안 성은 농업 관련 기업들과 함께 대규모 논밭, 물자 지원, 각종 장애물 최소화 등을 통해 성공 모델을 구축해옴

○ 이 분야에 있어 선두를 이끌고 있는 기업은 응에안 농업물자 주식총사로, 투자 발전활동과 농민들 간의 협력을 통해 연간 3,000-4,000ha 규모의 밭에서 생산 및 수확 활동을 하고 있음



- 빈호아(Vinh Hoa)유한책임회사 또한 “응에(Nghê)쌀”이라는 브랜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2014 년과 2015 년 2 년간 쌀을 생산하는 총 면적 3.300ha 대규모 밭 23 곳을 짓는 데에 지원해줌
- 기업의 주도적인 역할로 응에안 성은, 매년 분기마다 투자유치 촉진 위원회를 주최하는 동시에 우대 정책과 유연한 제도정책으로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고, 성 전체의 농업을 발전시키고 있음
- 그런 기업들 중 빠뜨릴 수 없는 “큰 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TH True Milk 사는 응이아단(Nghĩa Đản)현에 위치한 대규모 젖소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현대적인 우유 생산 및 제조시설이다. TH 사 외에도 비나밀크(Vinamilk) 주식회사(타이호아(Thái Hòa)읍 동히우(Đông HI ệ u)에 위치한 젖소 농장), 호아선(Hoa Sơn)농산물제조 유한책임회사(카사바 녹말 제조 공장), 나파가(Napaga)농업 투자개발 주식회사 등이 응에안 성에서 활동하고 있음
- 2 년 전, 응에안 성은 총 4 조 5000 억 동 이상의 등록 자본을 지닌 19 개의 농업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허가서를 발급했고 최근 몇 년간 마산(Massan)식품제조 공장, 로알푸드(Royal Food)생선 제조 공장 등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유치함
-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응에안 성의 농업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지만 아직까지는 투자를 확정하는 기업들의 수가 적어 그 잠재력을 모두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전함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23

## 기업 허가세, 허가료로 명칭 변경 자금 규모에 따라 3 배까지 증가 가능

- 2017 년 초부터 기업들은 재정부의 새로운 결의안의 내용에 따라 약 300-1,000 만 동의 허가세(허가료)를 지불하게 됨
- 최근 재 정부는 허가세에 관한 결의 의견을 제시했고 이 초안에 따르면, 기업이나 사업장의 경영 등록 허가에 필요했던 직접세인 허가세의 명칭을 이제부터 “허가료”로 바꿀 것이라고 전했다. 전에 재 정부는 정부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허가세와 같은 과세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안건을 제출함



- 현행 규정(2002년부터)에 따르면 기업들의 허가료는 자금 규모에 따라 최대 3 배까지 증가됨
  - 이에 따라 2017년부터 모든 기업들은 기업 자금 규모에 따라 매년 300 만동(자금이 100 억동 미만일 경우), 500 만동(자금 규모 100-1,000 억동 사이), 1000 만 동(자금 규모 1,000 억 동 이상)의 허가료를 납부해야 하고 각 기업에 속한 가게들이나 지점들은 200 만 동의 허가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함
  - 현행 규정에 따라 허가세는 100 만동부터 300 만 동까지 3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음. 각 사업장이나 가족경영 소규모 기업의 경우 허가세가 6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던 예전과는 달리 허가료로 변경된다. 변경되는 규정에 따르면, 연간 1-3 억 동 사이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개인이나 가정은 300,000 동의 허가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수입이 3 억 동 이상일 경우, 100 만 동의 허가료를 납부해야 함
  - 재정부가 정부에게 이와 같은 결의안의 변경을 요청한 이유는 허가세에 대한 부조리성이라고 설명했다. 본질적으로 허가세는 1년간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체의 수를 조사하기 위한 하나의 요금임
  - 하지만, 가족경영 업체에 대한 허가세가 6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매월 평균 수입에 따라 납부해야 했기 때문에, 납세자나 관세청 양쪽 모두에게 많은 어려움이 따랐고 사업체 수를 조사하는 기능 또한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현재의 허가세는 2002 년 월 최저임금인 290.000 동에 기반하고 있다(지난 5 월 1 일, 최저 임금은 1,210,000 동 이상 인상되었다)
  - 이에 따라 현재의 허가세 규정은 임금 변동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힘
-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23

### 석유탐사 개발사업에 대한 세제규정

- 최근 재정부는 석유가스법의 규정에 따라 석유탐사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개인과 조직에 대한 세제 규정에 관한 36/2016/TT-BTC 호 시행규칙을 발표함
- 이에 따르면 납세 대상자는 석유가스 계약자들을 포함한다.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납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합작회사, 프로젝트 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석유가스 계약상에는 베트남 석유가스 그룹(페트로베트남)이 석유가스 계약자들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에 대한 조항이 있으면, 베트남 석유가스 그룹은 납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합작회사, 프로젝트 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또 36/2016/TT-BTC 호 시행규칙에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원유에 대한 과세가격은 원유를 주고 받는 시점에서 공정거래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임
  - 공정거래에 따라 판매되지 않는 경우, 원유에 대한 과세가격은 그 당월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원유의 평균 가격임
  - 천연가스(Natural Gas)에 대한 과세가격은 정부총리가 승인한 천연가스 매매계약에 따라 천연가스를 주고 받는 시점에서 결정하는 가격이다. 세무 당국은 천연가스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관할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음
  - 36/2016/TT-BTC 호 시행규칙은 2016 년 4 월 12 일부터 시행효력을 가지고, 2016 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함
  - 이에 따라 석유 및 가스 탐사 개발 활동을 진행하는 개인과 조직에 대한 세제 규정에 관한 32/2009/TT-BTC 호 시행규칙은 폐지될 것임
-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23

### 계획투자부, 민관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타당성 평가, 투자 승인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

- 베트남 계획투자부는 민관협력 사업(PPP)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타당성 평가, 선정, 투자 승인 등에 관한 2016/3/1 일자, 02/2016/TT-BKHĐT 호 시행규칙을 제정함
- 위 02/2016/TT-BKHĐT 호 시행규칙은 민관협력 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s) 에 관한 15/2015/NĐ-CP 호 시행령 제 1 조의 규정에 따라 민관협력 프로젝트 선정, 타당성 평가, 심사, 승인 등을 안내하기 위함임
-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민관협력 프로젝트는 선정을 받기 위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 민관협력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사회 개발계획 또는 분야별 경제-사회 개발계획에 부합해야 함





- 이 프로젝트가 15/2015/NĐ-CP 호 시행령 제 4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함
- 이 프로젝트가 다른 프로젝트에 비교했을 때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투자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야 함
- 그 외에 민관협력 프로젝트는 선정을 받기 위해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추가로 만족해야 함
- 이 프로젝트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
- 이 프로젝트가 각종 서비스를 대량으로 사용할 예정임
-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여건(철거 보상 완료, 부대시설 설치완료, 원자재 공급의 안정성 확보 등)들이 유리하게 조성되어 있음
- 또 02/2016/TT-BKHĐT 호 시행규칙에는 민관협력 프로젝트의 사업타당성 보고서(report of business feasibility) 작성에 대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음
- 이에 따르면 프로젝트 준비자 또는 투자자가 15/2015/NĐ-CP 호 시행령 제 25 조, 1 항의 규정 및 부록 3 에 따라 사업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프로젝트 준비자 또는 투자자는 장관급 부서 또는 성(시)급 인민위원회에 사업승인 신청서류의 1 부를 제출하는 동시에 프로젝트 심사기관에 4 부를 송부해야 함
- 사업승인 신청서류는 사업승인 신청서, 사업타당성 연구 보고서, 장관급 부서 또는 성(시)급 인민위원회와 투자자 간 합의서, 제안에 대한 승인서와 기타 법적인 문서를 포함함
- 위 02/2016/TT-BKHĐT 호 시행규칙은 2016 년 4 월 18 일부터 시행효력을 가짐
-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23

## 은행 대여금고 임대 서비스에 관한 규정

- 베트남 중앙은행은 금융기관들의 자산보관 서비스 및 대여금고 서비스 제공에 관한 2016/2/26 일자, 02/2016/TT-NHNN 호 통지를 발표함
- 이 통지의 적용 대상자는 자산보관 서비스 또는 대여금고 서비스가 허용되는 금융기관과 민사법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산보관 서비스 또는 대여금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개인, 법인 또는 기타 주체들을 포함함
- ▲ 자산보관 서비스 또는 대여금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건



○ 금융기관은 자산보관 서비스 또는 대여금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성립허가서 및 사업승인서에 자산보관 서비스 또는 대여금고 서비스 활동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고, 자산보관과 대여금고 서비스에 대한 내부규정이 있어야 함

○ 금융기관은 자산(현금)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중앙은행의 기준에 맞는 금고를 별도로 사용해야 함

○ 금융기관은 대여금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중앙은행의 기준에 맞는 창고를 별도로 사용해야 한다. 또, 대여금고 이용 고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 창고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야 함

### ▲ 대여금고에 보관할 수 있는 물품

○ 중앙은행의 02/2016/TT-NHNN 호 통지에 따르면 법률규정에 따라 보관금지 물품, 화재와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물품, 위험물품 등을 보관할 수 없음

○ 대여금고 이용 고객이 통보 없이 위험물품을 보관하여 손해가 발생할 때 책임을 지어야 하고, 손해를 보상해야 함

### ▲ 대여금고 이용 기간에 대한 규정

○ 대여금고 이용 기간은 금융기관과 대여금고 이용 고객의 간에 체결된 계약에 명시해야 함

○ 그 외에 대여금고 계약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관물품을 받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처리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야 함

○ 중앙은행의 02/2016/TT-NHNN 호 통지는 2016년 4월 9일부터 시행효력을 가짐

\* 출처: Vietnam-Korea Times, 03.23